南北韓 國語學의 比較와 統合 展望*

韓 東 完**

Ⅰ. 들어가기
Ⅱ. 남북한 국어학의 비교와 대조 (1)
Ⅲ. 남북한 국어학의 비교와 대조 (2)
Ⅳ. 맺음말 : 남북한 국어학의 통합 전망

Ⅰ. 들어가기

종전 이후 지속되던 양극 체제가 80년대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대결 체제를 지속해오던 한반도는 2000년도에 들어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면서 대결에서 화해의 시대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 50년 동안의 한반도는 이질성의 심화로의 길을 걸어 왔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화해를 발판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데에는 남북이 함께 노력하여 극복해야 할 난관이 숱하게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북한은 주체 사상을 정립하였고, 그리하여 현상적으로는 자급자족적 경제 정책을 펴 오는 가운데 외부 세계와의 교류에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남한은 수출 주도의 경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자원에 의한 것임.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 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외부 세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개방과 세계화의 길로 줄달음쳐 온 사실은 정치, 사상,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어 등의 각 분야에서 남북한의 이질성을 심화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본 연구의 과제인 우리말 연구의 측면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해방 이후 초기 단계의 북한의 국어 연구는 해방 이전의 국어 연구를 수용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당대로 볼 때는 일정 수준의 국어학의 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체 사상의 등장으로 우리 말의 주체성, 고유성, 우수성 등을 무리하게 강조하려 함으로써 변형생성문법과 같은 새로운 일반언어이론적 설명틀에 대해 비판적 검토조차 없는, 그야말로 철저한 무시로 일관해 옴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남한의 국어학은 전통 문법, 유럽적인 구조주의 언어학, 미국적인 기술주의 언어학, 변형생성문법 등 주로 서구에서 발전되어 온 일반언어이론의 설명틀을 받아들여 이를 국어에 적용하는 시도를 왕성하게 벌여 오고 있다. 이처럼 두 체제를 떠받치는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의 국어학은 현상적으로는 폐쇄와 개방이라는 대립축의 양극단에서 점차 이질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북한 국어학 체계의 이질화 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일차 연도의 작업에서 살펴본 바 있다. 환언하자면, 일차 연도의 작업인 "北韓의 國語學 體系 槪觀"(韓東完, 『東亞研究』 33輯,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7)에서 우리는 이미 북한의 국어학 체계를 개관하였고, 이 개관을 통해 남한과의 이질화 정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1] 이 글은 일차 연도의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의 국어학 체계를 비교하고 대조하여 그 동질성과 이질성을 보이는 한편, 통합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1) 이차 연도의 작업은 "北韓의 國語學과 現實과의 關係"(韓東完, 『東亞研究』 35輯,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8)을 참고하기 바란다.

로 한다. 남북의 국어학 체계가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두 체계가 모두 형태론적으로 교착어적인 성격을 갖는 한국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심각한 이질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순수언어학적 측면에서는 방법론의 차이에 의한 이질성은 존재할 망정 이데올로기상의 차이에 의한 이질성은 거의 개입 불가능한 것일 것이다. 가령 우리말의 자음 체계를 다루는 한에 있어서 남북한의 상이한 이데올로기가 개입하여 이질성을 보이게 될 여지는 거의 없는 게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보면, 다른 어떤 학문 분야보다도 국어학이야말로 남북한 간의 통합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남북한 국어학의 비교와 대조 (1)

1. 대비의 대상 선정 문제

이미 지적하였듯이 남북한 국어학 간에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동질성과 이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비교와 대조의 대상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우선 답해야 할 것이지만, 남북한 국어학의 대비를 위한 대상으로 무엇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쉽게 답변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은 남북한 국어학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판이한 것에 기인한다. 일차 연도의 작업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북한 국어학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규범성에 있다고 했다. 이러한 규범성은 남한의 국어학과는 결정적으로 이질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국어학은 해방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규범성의 정도가 심화되는 길을 걸

어온 반면에 남한의 국어학은 일관되게 규범성보다는 기술성을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북한 국어학의 모든 업적이 『조선문화어문법 규범』(1977)이나 『조선문화어문법』(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등과 같이 집체적인 작업에 응축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남한의 국어학은 백가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방법론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결코 하나의 일치된 목소리로 응축되어 나타나 본 적이 없다. 따라서 남북한 국어학을 대비하는 작업은 그 대비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작업에서부터 장벽에 봉착하게 된다.

북한 국어학에서의 작업들은 앞서 든 두 책을 일단 비교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규범문법성이 이미 정착된 1980년대 후반에 출판되었으면서도 이론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리근영,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고신숙,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조선어리론문법(문장론)』(김용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조선어리론문법(단어조성론)』(김동찬, 1986), 그리고 『조선어학개론』(최정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남북의 국어학을 대비함에 있어서 남한 국어학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 이는 방금 지적하였듯이 남한의 국어학계의 성격 자체가 규범성과는 거리가 멀게 발전되어 왔기에 북한처럼 규범 문법을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학계 전반적이고 집체적인 사업을 벌여본 적이 없다는 사연에 의한 것이다.

물론 해방 이후 남한에서 중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문법으로 대표되는 규범 문법에 대한 모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색은 학계 전반적인 사업이 아닐뿐더러, 단일의 국정 교과서가 아니

라 5종에서 13종에 이르는 검인정 교과서로 집필된 것이므로, 남한의 규범 문법을 대표하는 단일의 체계를 갖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다가 비록 학계 전반적인 사업에 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1985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편찬으로 나온 『문법』이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로 선정됨으로써 남한에서도 비로소 단일의 체계를 갖춘 학교문법서를 갖추게 된다.[2] 이 『문법』은 1991년에 수정판이 나왔으며, 1996년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에서 펴낸 새로운 국정 교과서인 『고등학교 문법』(이하 『문법』(1996)이라 함)이 나오게 된다.

우리는 아쉬운 대로, 북한의 규범 문법과 대비를 위해, 『문법』(1996)이 남한의 규범 문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물론 이른바 '통일문법'을, 남한의 규범 문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학계 전반적인 집체적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거니와(이는 남한 사회의 성격상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이 '통일 문법'이 고등학교 교과서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1988년 1월 문교부 고시 제 88-1호에 의하여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한글맞춤법》에서 나오는 용어와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인 『문법』(1996)에서 일치되지 않은 기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곧 '통일 문법'의 한계를 웅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3] 그렇지

2) 이 『문법』은 흔히 '통일문법'이라 불리므로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통일문법'이라는 용어로 이를 지칭하기로 하겠다.)

3) 한 예만 들면, 『문법』(1996)에서는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한편, 언어의 단위 가운데 '어절'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 '어절'이 띄어쓰기의 단위가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는 제 2항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 하고 있다. 조사가 포함되는 개념인 어절을 인정한다면 '단어' 대신에 '어절'로 바꾸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래야만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문법』(1996)의 기술과 일치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일치 때문에 《한글맞춤법》 제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만, 『문법』(1996)이 단일의 규범문법으로서 남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규범문법적 성격의 문법서들과 전면적으로 대비될 수 있는 통일된 체계를 갖춘 국어학 개설서가 남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글에서 일차적으로 『문법』을 대비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 '통일 문법'을 이론적으로나 체계적으로나 더욱 심화시켜 놓은 『표준국어문법론』(남기심·고영근, 탑출판사, 1985, 개정 1993)을 참고할 것이다. 다음으로 순수 기술문법적 성격의 저술은 남한의 국어학 개론서들 가운데 1986년 초판된 이후 스테디셀러로 계속 보급되다가 2000년에 이르러 개정판이 나온[4] 『國語學槪說』(李翊燮, 學硏社)을 대비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밖에 우리는 항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각종 논저에서의 기술을 통한 학계의 기존 업적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결국 이 논의에서 본격적인 대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남한은 『문법』(1996)이며, 북한은 『조선문화어문법』(1979)이 된다.

2. 총론적 비교와 대조

남북한의 국어학 체계를 대비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언어 층위적 이질성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의미론의 존재 여부에 있다.

북한의 국어학계는 『조선어 문법 1 (어음론·형태론)』(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 1960), 『조선어 문법 2 (문장론)』(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 1963) 이래 『조선어 문법』이나 『조선문화어문법규범』, 『조선문화어문

4) 보급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음을 양해 바란다. 앞으로 각종 국어학 개론서에 대한 정확한 판매 부수가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한 전국 판매 부수가 아니라 지역별, 세대별 등과 같은 변수로 더욱 세분되어 그 판매 부수를 파악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법』 등에서 일관되게 언어 층위에 따른 하위 분야를 어음론, 형태론, 문장론 등으로 삼대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디에도 의미론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언어의 층위에 따른 하위 분야 별로 단행본을 내고 있는 『조선어리론문법』에서도 의미론을 대상으로 한 저술을 찾을 수 없다.

반면에, 남한의 국어학은 비록 그 시기는 50년대 이후부터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대상도 어휘의미론적 작업에 한정된 것에서 출발되었다 하더라도 점차 연구가 축적되면서 의미론 분야를 언어학의 한 층위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1981년에 이르러서는 『國語意味論』(金敏洙, 一潮閣)과 같은 단행본이 출간될 정도로 업적의 축적을 보게 되었으며, '통일문법'에서도 의미에 관한 기술이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을 정도로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문법』(1996)은 '언어와 국어, 말소리, 단어, 문장, 의미, 이야기, 바른 언어 생활, 표준어와 맞춤법, 부록(옛말의 문법, 우리말의 변천)'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부분이 비슷한 분량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 가운데 언어 층위와 관련된 '의미'가 '말소리, 단어, 문장, 이야기'등과 함께 대등한 자격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 학교문법서가 이러할진대, 『國語學槪說』(이익섭, 학연사, 1986)) 등에서 '의미론'이 국어학의 한 분야로 그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음은 두말한 나위가 없다.[6]

이처럼 언어 층위의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 국어학의 가장 큰 이질성은 의미론의 부재이다. 이 사실은 이미 일차 연도의 작업에서 밝힌 바이지만, 이처럼 의미론을 독자적인 층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론의 고유한 중심 논제들인 장 이론(field theory), 성분 분석, 그리고

5) '의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야기', 곧 화용론(pragmatics)을 담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국어학개설』에서 언어 층위적 기술은 음운론, 문법론, 의미론으로 삼대분되어 있다. 여기서 문법론은 형태론과 통사론을 포괄하는 것이다.

동의관계·이의관계·반의관계·상하의 관계 등과 같은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에 대한 논의나 전제와 함의, 함축 등과 문장 의미론적 논의들을 북한 국어학의 체계적 기술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일반언어이론적으로 볼 때,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과는 달리 의미론이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로 연구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일제 강점기의 우리말 연구를 상당 부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국어 연구 초기 단계에 의미론에 대한 연구는 일반언어이론적으로도 초기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국어학자들이 의미론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게다가 60년대 이후 주체 사상의 등장 이후 문화어 운동과 같은 규범 언어학의 작업에 매달리는 한편, 서구언어이론에 대한 배타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세계적으로 뒤이어 발전하고 있는 의미론에 대한 관심을 돌릴 겨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국어학의 체계 속에 의미론이 끼어들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남북한 국어학 체계의 총론적 대비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한자어계와 고유어계의 대립으로 특징지워지는 용어의 이질성 문제이다. 이 차 연도의 작업인 "북한의 국어학과 현실과의 관계"(『동아연구』 33집, 서강대 동아연구소, 1997)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북한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말다듬기 운동을 시작하였고, 이 운동은 1964년, 1966년의 두 차례에 걸친 김일성 교시에 따라 문화어가 규정된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상당수의 한자어들이 인위적인 정책적 사업에 의하여 고유어로 바꾸는 변모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이 실제적인 언어 생활에까지 어느 정도 깊숙이 파고들었는지는 북한 땅에서의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이 시점에서 섣불리 예단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언중들의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먼 학문적 용어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고유어로 바꾼 작업의 결실을 그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맺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북한의 초기 문법서인 『조선어문법』(조선어문연구회, 1949)에서는 한자어가 상당수 사용되었으나, 점차적으로 고유어로 바꾸는 작업을 전개하여 『조선문화어문법』(1979)에서는 급격히 고유어가 증가된 양상을 보여준다.

용어 문제에 있어서 남한의 사정은 북한의 고유어로의 대체라는 일방향성과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해방 이전에 간행된 『우리말본』(최현배, 정음문화사, 1937)의 뒤를 잇는 고유어계와 『國語學槪說』(李熙昇, 民衆書林, 1955)로 집약된 바 있는 한자어계의 국어학 용어의 대립이 해방 직후부터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도 남한의 국어학계는 고유어계만을 사용하는 학파와 한자어계를 사용하는 학파로 양분됨을 보이고 있다.[7] 이러한 사정은 규범 문법에도 반영되어 한 때 학교문법에 있어서도 두 계열의 용어가 병행 사용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나, 1963년 문교부에서 제정한 '학교문법 통일안'에서 문법 용어를 한자어로 선정함에 따라 이후 적어도 학교문법서의 거의 대부분은 한자어 계열의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결국 교육부 제정의 '학교문법통일안'은 두 계열의 대립 간에 어느 일방에 손을 들어 준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이다. 이에 대한 일부 반성이 작용하였는지는 모르지만, 1985년의 이른바 '통일문법'에서는 한자어 용어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 고유어계의 용어가 들어오는 부분적인 절충 양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1996년의 『문법』 역시 '통일문법'의 용어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다.

이상에서 간략히 지적하였듯이, 남한과 북한의 국어학 용어는 한자

7) 용어의 대립으로 양분된 두 학파 가운데 어느 한 학 학파가 다른 학파에서 나온 논문들을 어느 정도 읽고 참고문헌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면 뚜렷한 양분 현상을 실증해 줄 것으로 짐작된다.

어계와 고유어계라는 대립 징표로 뚜렷이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대립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남북한 국어학의 각론적 대비를 다루는 다음 절의 작업에서 자연스레 확인될 것이다.

Ⅲ. 남북한 국어학의 비교와 대조 (2)

1. 음운론

일반언어학에서의 phonetics, phonology에 해당하는 것을, 북한은 구별 없이 어음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르고 있다. 어음론은 현재 확인되는 북한의 모든 국어 연구서에 나타나는 용어이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음성학, 음운론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국어학개설』(이익섭, 1986)에서는 음운론 속에 음성학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어학개설』의 하위 구성이 1) 발음기관, 2) 음성의 분류, 3) 음소, 4) 음운규칙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고유어계의 용어를 사용하는 『우리말본』에서는 '말소리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자로 '音聲學'을 병기해 놓고 있다. 그리고는 내용상으로는 음운론적 내용을 말소리갈에 포함시키고 있다. 남한의 규범 문법서인 『문법』(1996)에서는 '말소리'라는 고유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위 분야를 1) 음운과 음절, 2) 음운의 변동으로 나누고 있다.

위에서 북한의 『조선문화어문법』(1977)이나 남한의 『문법』(1996)에서 모두 '말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음운론 층위의 하위 기술을 보면, 북한은 말소리를 낱소리와 뜻소리로 나누고 있는데, 낱소리는 남한의 음성에, 뜻소리는 음운에 해당한다. 한

편, 북한 용어인 '소리마디'는 남한 용어로는 '음절'이다. 이처럼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그 개념상에서는 남북한 모두 일반언어이론의 allophone, phoneme, syllable 등의 개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남한의 『문법』(1996)에서는 '말소리' 단원의 하위 분야를 1) 음운과 음절, 2) 음운의 변동으로 나눈 다음, 1)에서는 음성과 음운, 음운의 체계, 음절을, 2)에서는 음운의 변동 현상, 사잇소리 현상을 다루고 있다. 반면 북한의 『조선문화어문법』(1979)의 경우를 보면, 어음론의 하위 분야를 1) 말소리의 발음, 2) 소리마디의 발음과 형태부의 소리 구성, 3) 단어의 발음, 4) 문장의 발음 등으로 보다 자세하게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면이나 분량에 있어서 남한의 『문법』은 물론이고, 『국어학개설』(이익섭)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분량이 늘어난 것은 2)에서의 '형태부의 소리 구성'이, 남한에서는 형태론에서 다루어질 'ㄷ, ㅂ, ㅅ, ㄹ, 르, 우, 러' 불규칙 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한의 문법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문장의 발음'이 1) 말소리 흐름과 억양, 2) 높낮이선, 3) 률동, 4) 문장의 소리마루, 5) 끊기, 6) 말의 속도, 7) 소리빛갈 등을 포괄하여 상당한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음운 목록에 있어서는 남북한 모두, 40개를 설정하고 있다. 남한의 『문법』(1996)은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자음 19개를 설정하며, 북한의 『조선문화어문법』 역시 홑모음 10개, 겹모음 11개, 자음 19개와 같이 모두 40개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목록의 수에 있어서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차이는 물론이고, 그 구체적인 분류나 체계 설정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이질성이 확인된다.

남한의 『문법』(1996)은 단모음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4계열 3단계의 체계로 설정하는 것은 『국어학개설』 등 남한의 거의 대부분의 모음 체계 기술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혀의 앞뒤 /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 순	원 순	평 순	원 순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반면, 북한의 모음 체계 기술에서는 이러한 일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어 문법 1』, 『조선문화어문법』, 『조선문화어문법규범』, 『조선어학개론』 등의 모음 체계 기술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선 『조선어 문법 1』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음 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3계열 3단계라 할 수 있다.

	앞	중간	뒤	
닫 힘	ㅣ(ㅟ)	ㅡ	ㅜ	
가운데	ㅔ(ㅚ)		(ㅗ)	가운데 닫힌 모음
	ㅐ		ㅓ	가운데 열린 모음
열 림		ㅏ		

( )안에 쓴 것은 원순 모음이다.

위 체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모음 'ㅓ'를 '비원순화 가운데 열린 뒤모음'(곧 후설 반개 비원순모음)으로 보고 있는 점과 'ㅜ'를 '비원순 모음'의 하나로 보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조선문화어문법규범』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음 체계를 표로 제시하고 있다.

혀의 앞 뒤 / 입술의 모양 / 혀의 높이	끝모음	앞모음		가운데 모음	뒤모음	
	길쭉모음	길쭉모음	둥근모음	길쭉모음	길쭉모음	둥근모음
높은모음	ㅣ	ㅔ	ㅟ	ㅡ	ㅓ	ㅜ
낮은모음		ㅐ	ㅚ		ㅏ	ㅗ

이 체계는『조선어 문법 1』과 상당 부분 상이한 체계다. 용어도 그러하고, '높은모음'과 '낮은모음'의 2단계 설정, 그리고 혀의 앞뒤에 의한 분류에 '끝모음'이 하나 더 있는 것도 그러하다. 다만 'ㅜ'는 둥근모음(곧, 원순모음)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조선어 문법 1』에서 뒤모음으로 처리되었던 'ㅓ'뿐만 아니라 'ㅏ'까지도 뒤모음(곧, 후설모음)으로 잡고 있다.

이처럼 남한의 모음 체계뿐만 아니라 북한 내의 모음 체계 기술 자체에서도 다르게 기술되던 진통은『조선어학개론』에 이르러서야 해소된다. 이 책에서의 단모음 체계는 다음과 같다.

		앞모음		뒤모음	
		둥글지 않은모음	둥근모음	둥글지 않은모음	둥근모음
높은모음	닫힌모음	ㅣ	ㅟ	ㅡ	ㅜ
가운데 높은모음	절반 닫힌모음		ㅚ		ㅗ
가운데 낮은모음	절반 열린모음	ㅔ		ㅓ	
낮은모음	열린모음	ㅐ		ㅏ	

이 모음 체계는 4계열 4단계로서, 남한에서 기술되어온 그것과 거의 그대로 일치한다. 중설 모음은 없어졌고, 그러기에 'ㅢ', 'ㅏ'를 뒤모음으로 잡는 것은 체계상의 대립을 고려한 남한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혀의 높이에 의한 구분을 남한의 그것보다 하나 더 나눈 것이 차이점으로 지적될 뿐이다.

자음 체계에 있어서도 목록은 남북한 공히 19개이지만, 그 체계적 위치 규정이나 명명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그러나, 모음의 체계에서 보였던 정도로 심각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차연도의 작업에서 언급된 바이므로, 여기서는 상술을 피한다. 다만 용어의 문제와 관련하여 '된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혀끝소리' 등과 같이 남북한이 일치되는 용어가 일부 확인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음운의 변동과 관련하여 남한의 『문법』(1996)(1996)은 1) 음운의 변동 현상과 2) 사잇소리 현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음운의 변동 현상으로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2) 자음 동화, 3) 구개음화, 4) 모음 동화, 5) 모음 조화, 6) 축약과 탈락, 7) 된소리되기 등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조선문화어문법』은 1) 말소리의 이음과 끊음, 2) 소리닮기, 3) 같은소리피하기, 4) 모음의 어울림, 5) 소리빠지기와 소리끼우기, 6) 소리바꾸기 등을 다루고 있다. 음운의 변동에 관한 한, 남북한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남한 『문법』에서의 '사잇소리 현상'이 북한의 『조선문화어문법』에서는 '소리끼우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지적될 만한 차이점이다. 특히 『조선문화어문법』에서의 '소리끼우기'에서는 "앞에 있는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있는 어근이 순한소리나 울림소리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어근의 끝에 받침소리 《ㄷ》가 끼워들어 간다."(p.97)라고 하여, 남한의 『문법』(1996)에서 사잇소리 현상을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

성 명사를 이룰 때,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리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p.33)하는 것으로 기술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잇소리 현상의 분포와 제약을 상당히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2. 형태론

남한의 『문법』(1996)은 '단어'라는 단원명으로 형태론을 다루고 있다. 이 '단어' 단원은 1) 단어의 갈래, 2) 단어의 짜임새로 구성되어 있다. 1)은 품사론에, 2)는 조어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의 『조선문화어문법』은 1) 단어와 단어의 짜임, 2) 품사, 3) 조선말에서의 단어의 문법적 형태와 토, 4) 체언토, 5) 용언토, 6) 바꿈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은 조어론에, 2)는 품사론에 해당한다. 3)-6)은 남한 「문법』의 '단어' 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것들로서, 좁은 의미의 형태론 분야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은 본질적으로 문장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통사론/문장론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는 분야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형태론은 조어론과 품사론, 그리고 좁은 의미의 형태론을 포괄하고 있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남한의 『국어학개설』(이익섭)은 언어 층위적 기술을 1) 음운론, 2) 문법론, 3) 의미론으로 삼대분하고 있다. 여기서 문법론은 형태론과 통사론(북한에서는 문장론)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는 『국어학개설』의 문법론이 1) 형태소, 2) 단어, 3) 품사, 4) 굴절과 문법 범주, 5) 구성, 6) 문장의 접속과 내포, 7) 변형생성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서 쉽게 확인된다. 5)-7)은 통사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어론에 있어서 남한의 『문법』(1996)은 단어를 그 구조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복합어를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눈다. 파

생어는 어근에 접사(접두사 혹은 접미사)가 결합되어 한 단어가 된 것이고,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을 말한다. 『국어학개설』은 단어를 단일어와 합성어로 나누고, 합성어를 파생어와 복합어로 나누는 용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책 모두 조어론의 기술은 매우 소략하다. 반면에 『조선문화어문법』은 "단어가 짜이는 데 참여하는 가장 작은 뜻덩이"(p.172)를 형태부라고 부르고(이는 형태소에 해당), 단어를 이루는 데 기본이 되는 형태부를 말뿌리, 말뿌리의 앞에 붙어서 부차적인 뜻을 더해 주는 형태부를 앞붙이, 말뿌리에 붙어서 부차적인 뜻을 더해주는 형태부는 뒤붙이라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명명은 남한 『문법』(1996)의 어근, 접두사, 접미사에 각기 해당한다.[8] 한편, 『조선문화어문법』은 남한의 어간에 해당하는 것을 '말줄기'라 하여 '말뿌리'와 구별하고 있다. 이는 남한 용어로 각기 어간과 어근에 그대로 대응된다.

품사론에 있어서 남한의 『문법』(1996)은 "공통된 성질을 지닌 단어끼리 모아 놓은 단어의 갈래를 품사(品詞)라"(p.43) 하고 그 하위 분류를 1) 체언 : 명사, 대명사, 수사, 2) 관계언 : 조사, 3) 용언 : 동사, 형용사, 4) 수식언 : 관형사, 부사, 5) 독립언 : 감탄사 등과 같이 나눔으로써 5언 9품사 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 9품사 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를 품사로 인정할지 여부이다. 학문 문법에서는 조사를 곡용형으로 보고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8품사 체계가 되는데, 이는 후술할 북한의 그것과 용어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완벽한 일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국어학개설』(이익섭)은 품사분류의 기준으로 1) 어미 변화상의 특징과 같은 '형태'와 2) 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의 다른 단어와 갖는 관계, 곧 '직능'을 제시하고, 보조적

8) 『우리말본』은 어근을 '씨뿌리', 접사를 '씨가지'라 하고 있다.

수단으로 3)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분류 기준에 따라 품사를 크게는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와 같이 6 품사로, 작게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와 같이 9 품사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6품사란 결국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 명사라 하고, 동사, 형용사를 묶어 동사라 한 데서 9품사와 달라진 것이다. 6품사로 보든, 9품사로 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조사를 별도의 품사로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실상 어미와 조사 가운데 조사만을 별도의 품사로 인정하는 것은 남한 품사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9]

한편, 북한의 『조선문화어문법』은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1) 단어들의 일반화된 뜻의 특성, 2) 단어들의 문법적 형태상의 특성, 3) 단어들의 문장론적 기능상의 특성, 4) 단어들의 이루어짐새의 특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10] 이 기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의 8품사 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 8품사 체계는 북한의 거의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여기서 감동사는 남한의 감탄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이는 북한은 일관되게 남한에서 조사로 처리되는 것을 '토'로 처리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체언 뒤에 붙는 곡용 접사이건, 용언 뒤에 붙는 활용 접사이건, 모두 '토'로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토는 말줄기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단어의 변화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단어의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체언의 곡용과 관련하여, 조사는 남한의 『문법』(1996)에서 격조사와

9) 이에 따라 『문법』(1996)에서는 단어의 정의를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 형태소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이라 정의하고 있다.(p.56) 이 정의에서 후자는 조사를 단어에 포괄시키기 위한 진술이다.

10) 여기서 '단어들의 이루어짐새의 특성'은 남한의 문법서들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기준이다.

접속 조사, 보조사로 삼분된다. 격조사는 그 하위에 1) 주격 조사('가'와 '이'), 2) 관형격 조사('의'), 3) 목적격 조사('을'), 4) 부사격 조사('에'), 5) 호격 조사('아'), 6) 보격 조사('이/가'), 7) 서술격 조사('이다') 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격조사의 구분에서, 논쟁의 와중에 있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본 것은 이른바 '통일 문법'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 할 만하다. 또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를 보격 조사로 한 것도 통일 문법의 특징이다. 규범 문법으로서의 통일 문법이 학문 문법과 가장 거리가 먼 부분이 바로 이 서술격 조사와 보격조사와 관련된 기술이다. 『국어학개설』(이익섭)은 조사를 격조사와 특수조사로 나누고, 격조사를 다시 주격 조사, 대격 조사, 처격 조사, 향격 조사, 구격 조사, 공동격 조사, 속격 조사 등으로 나눔으로써 보격 조사와 서술격 조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사는 북한의 『조선문화어문법』에서 체언토에 해당하는데, 체언토는 격토와 도움토, 복수토로 삼분된다. 남한에서는 파생 접미사로 다루어지는 것이 여기서는 '복수토'로 처리되고 있으며, 남한의 접속 조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격토는 8개의 격을 가진 격체계의 설정으로 설명되는데, 이 격체계에는 주격(가, 께서), 대격(를), 속격(의), 여격(에게, 에, 께), 위격(에게서, 에서), 조격(로, 로서, 로써), 구격(와), 호격(여, 야) 등이 있다. 여격, 위격이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지만, 남한의 국어학계에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도움토는 의미에 따라 포함, 제한, 양보, 강조, 부정, 문장에서 내세움, 시작과 마지막의 관계 등과 같이 8개로 나뉘어 있다. 복수토로는 '-들'만이 인정되어 그 용법이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그것만으로 단어 형태를 끝맺어 매듭지을 수 있으며 문장 속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자리를 나타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자리토(격토, 맺음토, 이음토,

얹음토, 꾸밈토)와 끼움토(상토, 존경토, 시간토, 도움토)를 나누는데, 이 자리토는 남한의 어말 어미, 끼움토는 선어말 어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분류법을 곡용, 곧 체언토에까지 확대하여 남한의 격조사에 해당되는 격토를 자리토라고 하고, 보조사에 해당하는 것을 끼움토라고 기술한 것은 남한의 문법 기술에서 쉽게 찾아지지 않는 기술이다.

용언의 활용과 관련하여, 어미는 남한의 『문법』(1996)에서는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양분되고, 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삼분되고 있다. 종결 어미는 문장을 끝맺는 어미로서 이에는 평서형 어미, 감탄형 어미, 의문형 어미,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가 있는 것으로 기술되며, 연결 어미는 문장을 끝내지 않고 앞절을 뒷절에 연결하는 어미로서 이에는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가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밖에 보조적 연결 어미를 두고 있는데, 이 어미는 본용언을 보조 용언에 이어주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전성 어미는 서술하는 기능과 더불어 또다른 기능을 하도록 하는 어미로서 관형어의 구실을 하게 하는 관형사형 어미와 명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 명사형 어미로 나뉜다.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부사형 어미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어학개설』(이익섭)은 위 『문법』(1996)과 비슷하게 어미를 분류하고 있는데, 다만 어말 어미를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로 양분하고, 비종결 어미를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로 양분하는 분류법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문법』(1996)에서 설정되지 않은 부사형 어미를 전성 어미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남한의 어미에 해당하는 북한의 용어는 용언토와 바꿈토이다. 『조선문화어문법』은 용언토를 맺음토, 이음토, 꾸밈토, 얹음토, 존경토, 시간토, 상토로 나뉘어 기술되고 있다. 이들을 남한식 용어로 바꾸면 종결

어미, 연결 어미, 부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존대 선어말 어미, 시제 선어말 어미, 피사동 접사라 할 수 있다. 남한의 어미 기술과 대비하면, 상토만 제외하면 거의 근사함을 알 수 있다. 맺음토들은 말법(곧 문체법)과 말차림(곧 話階)에 따라 나뉘어 진술되고 있는데, 말법은 다시 '알림'(평서형), '물음'(의문형), '추김'(청유형), '시킴'(명령형)으로 사대분됨으로써 남한에서 인정되는 감탄형이 빠져 있다. 이음토는 벌림 관계와 매임 관계로 양대분되는데, 벌림 관계는 남한 문법으로 보자면 대등 관계, 매임 관계는 종속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남한 문법 기술에서 확인되는 '보조적 연결 어미'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는 북한의 문법이 보조 용언 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따른 것이다. 꾸밈토는 "어떤 단어가 용언의 앞에 쓰이면서 그 용언을 문법적으로 꾸며주는 자리에 있음을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p. 303)를 이르는 것으로서, 그 형태로 '게, 도록, 듯, 듯이, ㄹ수록'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부사형 어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얹음토는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는, ㄴ, 던, ㄹ'이 제시되어 있다. 존경토, 시간토를 끼움토에 소속시키는 것은 남한에서 선어말 어미로 처리하는 것과 견해를 함께 하는 것이다. 바꿈토에는 체언을 용언형으로, 그리고 용언을 체언형으로 바꾸는 것으로 양대분되는데, 전자에는 남한의 『문법』(1996)에서 서술격 조사로 처리된 '이다'가 속해 있으며, 후자에는 명사형 어미로 처리된 '-ㅁ, -기'가 속해 있다. '이다'를 체언을 용언형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는 것은 남한 학계에서도 일부 인정되는 견해이다.

3. 문장론

남한의 『문법』(1996)은 '문장'이라는 단원명으로 통사론/문장론을 다

루고 있다. 이 단원은 1) 문장의 짜임새, 2) 문법 기능으로 양대분되는데, 1)에는 문장의 성격, 문장성분, 겹문장의 짜임새 등이 속해 있고, 2)에는 문장 종결,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 부정 표현이 속해 있다. 반면에 『조선문화어문법』의 문장론은 1) 문장과 그 기본 표식, 2) 문장의 갈래, 3) 문장을 이루기 위한 단어들의 어울림, 4) 문장의 전일적인 짜임과 문장 성분, 5) 외구성문, 6) 복합문, 7) 옮김법의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 성분에 대해서 남한의 『문법』은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등과 같이 7개의 성분을 두고 있다. 여기서 설정된 보어를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체언에 한정하는 것이 이른바 '통일 문법'의 특징이지만, 학문 문법에서는 보어를 목적어와 대등한 개념으로 사용하면 했지, 이처럼 겨우 두 동사에 의한 문장에서 나타나는 성분인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시켜 놓은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선문화어문법』에서는 문장성분을 크게 맞물린성분과 외딴성분으로 나뉘는데, 맞물린성분은 다시 세움말, 풀이말, 보탬말, 얹음말, 꾸밈말로, 외딴성분은 부름말, 끼움말, 느낌말, 이음말, 보임말로 나뉜다. 이들에서 전자는 각기 주어, 서술어, 보어, 규정어, 상황어에 해당하며, 후자는 호칭어, 삽입어, 감동어, 접속어, 제시어에 해당한다. 그런데 후자의 분류를 세밀하게 해 놓은 것은 북한 문법 체계의 특징이다.

문장의 짜임새와 관련하여, 『문법』(1996)은 1)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맺어져 있는 문장 짜임새를 '홑문장'이라 하고, 2) 주술 관계가 두 번 이상 맺어져 있는 문장의 짜임새를 '겹문장'이라 하고 있다. 여러 홑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겹문장이 되는 과정을 '문장의 확대'라 하고 있는데, 문장의 확대를 1) 한 홑문장을 절로 바꾸어 다른 문장의 한 성분이 되도록 하는 과정과 2) 홑문장

이 둘 이상 이어져서 겹문장이 되는 과정으로 나누고, 전자의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문장을 '안은 문장', 후자에 의한 것은 '이어진 문장'이라 부르고 있다. 음운론의 일부 용어에서와 더불어 이 문장론의 진술에서 고유어가 섞인 용어가 대폭 등장하고 있음은 지적할 만한 사실이다. 안은 문장은 1) 명사절을 안은 문장, 2) 관형절을 안은 문장, 3) 부사절을 안은 문장, 4) 서술절을 안은 문장, 5) 인용절을 안은 문장으로 나뉜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홑문장이 서술절이 되어 전체 문장의 서술어 구성을 하는 문장, 곧 '서술절을 안은 문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11] 서술절을 안은 문장은 국어 통사론 기술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의 하나인 이른바 이중주어문을 기술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이어진 문장은 1)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2)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한편 북한의 경우 『조선문화어문법』은 문장을 구조적 특성에 따라 1) 두구성문과 외구성문, 2) 단순문과 확대문, 3) 완전문과 불완전문, 4) 단일문과 복합문으로 나눈다.[12] 여기서 1)~3)은 남한의 『문법』(1996)에 없는 기술이다. 4)의 단일문은 문장이 될 수 있는 단위가 하나인 것으로 『문법』(1996)의 홑문장, 복합문은 두 개 이상 겹쳐 있는 것으로 『문법』(1996)의 겹문장에 해당한다. 복합문은 겹침복합문과 이음복합문으로 나뉜다.

문장 종결에 있어서 남한의 『문법』(1996)은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11) 이처럼 이중주어문을 서술절을 설정하여 기술하는 태도는 이미 북한의 『조선어 문법 2』에 나와 있다.

12) 두구성문은 세움말(주어)과 풀이말(서술어)이 갈라져 있는 문장이고 외구성문은 그렇지 않은 문장을 말한다. 단순문은 하나의 자립적인 단어나 또는 거기에 보조적인 단어가 덧붙은 단순한 성분으로만 된 문장을 말하고, 확대문은 두 개 이상의 자립적 단어로 확대된 성분을 가진 문장을 말한다. 완전문은 필요한 문장성분이 다 표시된 문장이고, 생략된 것은 불완전문이다.

명령문, 청유문 등으로 5대분한다. 이러한 분류는 남한의 거의 대부분의 문법 기술에서 확인된다. 반면 북한의 『조선문화어문법』은 문장을 이야기의 목적에 따라 알림문장, 물음문장, 추김문장, 시킴문장으로 나누는 한편, 이들에 감동적 어조가 얹히면 느낌문장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나온 용어들은 순서대로, 『문법』(1996)의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에 각기 해당되는데, 감탄문을 다른 4개의 문장 종결법과는 달리 일종의 초문장적으로 본 것은 주목할 만한 진술이다.

문장의 기능과 관련하여 남한의 『문법』(1996)은 1) 높임 표현, 2) 시간 표현, 3) 사동 표현, 4) 피동 표현, 5) 부정 표현 등을 기술하고 있다. 높임 표현은 경어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상대 높임법의 등급은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의 4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시간 표현은 시제 범주에 해당하는 것인데, 현재 시제 · 과거 시제 · 미래 시제의 3분법을 택하고 있다.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 '-는-, -(으)ㄴ'에 의해, 과거 시제는 '-었-', '-더-', '-었었-'에 의해, 그리고 미래 시제는 '-겠-'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시간 표현에 동작상을 두는 것은 남한 『문법』(1996)의 특징이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으로 정의되는데, '-고 있-'에 의해 진행상이, '-어 있-'에 의해 완료상이 실현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언어이론적 측면으로 보면 동작상(aspect)은 그 정의상, 발화시와 같은 기준점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동, 피동, 부정 표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한다.

북한의 경우는 이상의 문장의 기능들을 '토'를 다루는 형태론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말에 있어서 형태론을 강조하는 태도는 북한의 여러 문법서에서 보이지만, 특히 '토'가 발달된 것을 우리말의 가장 중요한 특

징임을 여러 대목에서 밝히고 있는 점을 보면, '토'에 대한 기술을 통해 문장의 기능들을 포괄하고 있는 이유가 이해될 수 있다. 『조선문화어문법』의 형태론 기술에서는 남한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존경토 '-시-'를 두고 있다. 객체 높임이나 상대 높임에 대한 기술은 없다. 시간토는 현재의 'ㄴ/는', 과거의 '았', 미래의 '겠', '리' 등과 같은 끼움토에 의해 실현된다고 보는데, 이는 시제 구분에 있어서 삼분법을 택하는 남한의 그것과 거의 흡사하다. 상토는 남한에서는 피동 접사, 사동 접사와 같이 전통적으로 파생 접사로 다루어져 온 '이, 히, 기, 리' 등등을 말한다.

Ⅳ. 맺음말 : 남북한 국어학의 통합 전망

서두에서 잠깐 지적했듯이 다른 어떤 학문 분야보다도 국어학 분야는 이데올로기의 개입이 심하지 않은 분야이다. 설사 이데올로기가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언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면 그 설득력은 금방 상실되고 만다. 이는 다른 인문사회과학에서도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언어학에서 상정된 원리나 규칙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직관에 의해 당장 그 타당성 여부가 검증될 여지가 가장 높다는 데 기인한다. 그만큼 언어학은 인문사회과학 가운데서도 자연과학에 가장 가까운 학문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데올로기는 언어 사용의 측면에 한정되어 개입 가능한 것이고, 언어 능력이나 언어 체계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순수언어학적 학문 체계에 개입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다른 어떤 학문 분야보다도 남북한 국어학은 통합 전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말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원천적인 제약과 함께 무엇보다도 일제 강점기의

국어 연구의 전통을 남북한 모두 이어받았다는 점 또한 남북한 국어학의 통합 전망을 매우 밝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의 절들에서 남북한의 국어학에 대한 비교와 대조를, 특히 규범문법을 통해 기술한 바 있다. 이 절에서는 앞 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국어학의 통합 전망을 살펴본다.

우선 총론적으로 볼 때, 남북한 국어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 국어학 체계에는 의미론이 부재하다는 사실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분야는 쉽게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쪽이 부재할 때 존재하는 다른 쪽이 그것을 쉽게 보완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과 달리 남한의 『문법』에는 '이야기'라는 언어 층위(이는 화용론에 해당)를 포괄하고 있는 것도 부재에 의한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한 쪽의 부재에 의한 보완은 그 역의 방향도 동등하게 작용한다. 곧 남한의 문법 기술에서는 없거나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북한 문법은 기술해 놓았기 때문에 보완해 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가령, 앞절에서 보았듯이 남한의 문법 기술에서는 대체적으로 소홀히 해 온 '문장의 발음'에 대해서 북한 문법은 상당한 분량으로 기술하고 있다. 물론 이런 기술이 언어를 선전·선동의 도구로 보는 북한 이데올로기의 결과물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 문법을 설정할 때에 북한 국어학이 이 방면의 연구에 대해 상당 정도 업적을 축적해 놓은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용어의 대립 문제에 있어서의 통합 전망을 다뤄 본다. 앞 절에서 지적하였듯이 남북한 국어학을 총체적으로 볼 때는 한자어계와 고유어계 용어의 대립으로 특징지워진다. 대체적으로 남한은 한자어계의 용어를, 북한은 고유어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이라

고 해서 한자어계의 용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규범문법서인 『문법』(1996)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음운이나 문장에 관한 일부 기술에서 고유어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북한 국어학이 상당량의 고유어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자어계의 용어에 대해 전면적 거부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경우는 남한이 고유어계 용어를 사용하는 곳에 북한은 한자어계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말본』 이래 남한 국어학의 양대축의 한 축을 이루는 학파에서 철저히 고유어계 어휘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북한의 국어학은 한자어 사용에 있어서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용어 문제에 관한 한 남북한 국어학의 통합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어느 쪽이든 용어 자체에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개입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통합 전망을 밝게 해 주는 것이다.

남북한 국어학의 각론의 대비를 놓고 볼 때도 통합 전망은 매우 높다. 우선 음운론의 기술에서,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는 거의 일치된 기술을 보이고 있다.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제약 기술은 남한쪽이 상세하므로 이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품사론에 있어서 남북한의 규범 문법이 각기 9품사 체계와 8품사 체계로 대립되고 있지만, 남한의 학문 문법에서는 8품사 체계를 취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북한측의 8품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사를 단어로 인정한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북한 문법처럼 곡용이든 활용이든, 이를 토로 기술하는 것이 일관성이나 일반언어학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훨씬 바람직할 기술일 것이다. 다만 피사동접사를 기능상 상토라 하는 한편 위치상 끼움토라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어말어미처럼 다루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상토는 남한 국어

학의 기술대로 피사동 접사로 다루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체언의 곡용에 있어서 남한『문법』의 보격 조사와 서술격 조사는 남한의 학문 문법에서는 거의 수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툼 없이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 국어학에서 '여격', '구격', '위격', '조격'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남한 국어학에서처럼 '부사격'으로 통합하여 설정하고, 대신 최근의 의미역 이론을 동원하여 그 세부적 의미 기능을 다루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남북한 통일 규범 문법의 제정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을 만한 것들이 어느 학문 분야보다 많은 듯이 보이며, 누차 강조하는 바이지만 남북 국어학의 통합 전망은 매우 높은 듯이 보인다. 다만 서술절의 설정에서 보듯이 남북한 국어학에서 모두 일치를 보이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들도 다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글을 맺는다.